

글장이와 함께 하는 헛갈리는 우리 어휘

#늘이다 : 본디보다 더 길어지게 하다. (길이)

Ex) 옛가락을 늘이다

#늘리다 : 물체의 넓이, 부피 따위를 본디보다 커지게 하다. (넓이, 부피, 수, 세력, 능력 등...)

Ex) 푸쉬업 횟수를 늘리다, 정시를 더 늘려라!

#오랜만에 만난 절친들 (O)

오랫만에 만난 절친들 (X)

#오랜만에 : '오랜만에' 는 '오래간만에' 의 준말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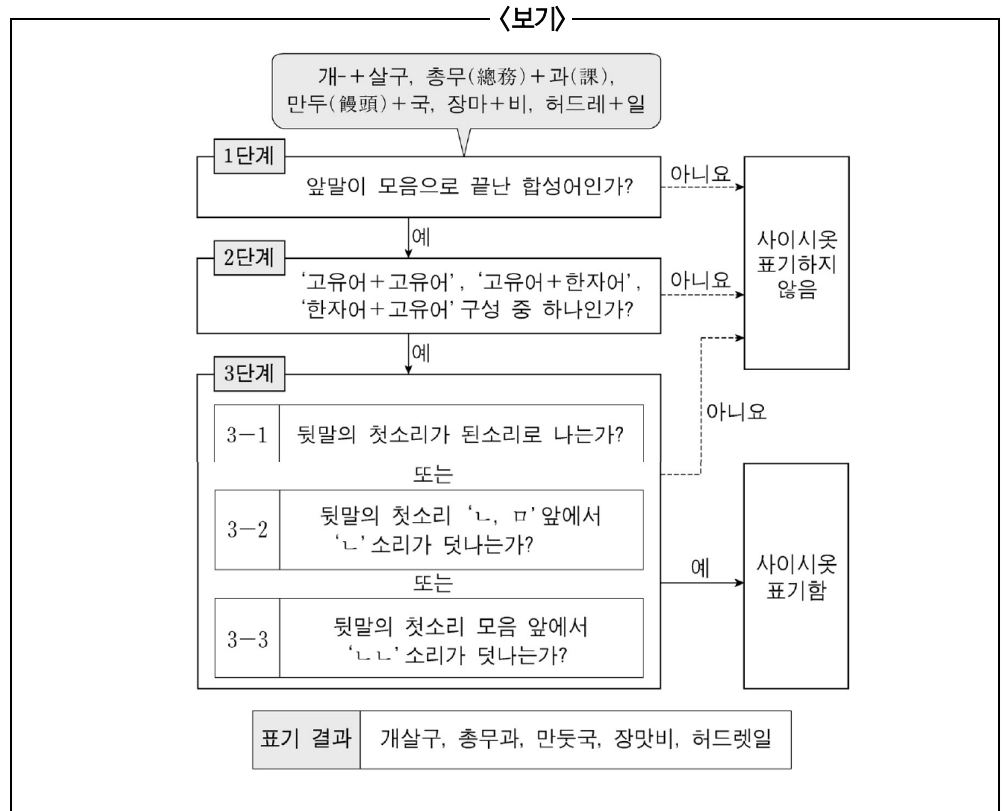
※사이시옷

1. 단어 + 단어
 2. 두 단어 중 하나는 고유어
 3. 'ㄴ' 뒷남 or 없었던 '된소리'
- 예외 6단어) 숫자, 셋방, 횡수, 찻간, 곳간, 뒷간

Ex) 아래 + 방 [아래방] = 아랫방
 등교 + 길 [등교길] = 등굣길
 코 + 날 [코날] = 콧날
 나무 + 잎 [나무잎] = 나뭇잎
 이 + 몸 [인몸] = 잇몸

연습해봅시다!

11. <보기>는 사이시옷 표기 조건에 관한 학습 활동지의 일부이다. 학습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3점]



- ① '개+살구' 구성은 1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'개살구' 라고 쓴다.
- ② '총무+과' 구성은 2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'총무과' 라고 쓴다.
- ③ '만두+국' 구성은 1, 2, 3-1단계를 만족시키므로 '만두국' 이라고 쓴다.
- ④ '장마+비' 구성은 1, 2, 3-2단계를 만족시키므로 '장맛비' 라고 쓴다.
- ⑤ '허드레+일' 구성은 1, 2, 3-3단계를 만족시키므로 '허드렛일' 이라고 쓴다.

#달이다 : 액체, 약재 따위를 **끓이다**.

Ex) 다음, 열이 내리도록 쑥 잎을 **달여** 먹었다. 출처: 문순태, 타오르는 강

#다리다 :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기 위하여 다리미나 인두로 **문지르다**.

Ex) **다리지** 않은 셔츠라 구김이 심하다.

#문이 저절로 닫혔다. (X)

문이 저절로 **닫혔다**. (O)

#달히다 : '달다'의 **피동사**

Ex) 4시가 넘었으니 은행 문이 **닫혔을** 거야.

철민이는 생각을 할 때 입이 굳게 **닫힌다**.

#달치다 : 열린 무언가를 꼭꼭 또는 세게 달다. 입을 굳게 다물다.

Ex) 병화는 더 캐어묻고 싶었으나 대답이 탐탁지가 않아서 입을 **닫쳐** 버렸다. 출처: 염상섭, 삼대

현수는 화가 나서 문을 **랑 달치고** 나갔다.

#지갑 형편이 넉넉지 않다.

지갑 형편이 **넉넉지** 않다.

#넉넉하다 : 크기나 수량 따위가 기준에 차고도 남음이 있다.

※ **울림소리(유성음)와 안울림소리(무성음)**

어간이 유성음(ㅇ, ㄴ, ㄹ) → '치' ('~하다'에서의 'ㅎ'과 결합)
그 외 → '지'

Ex) 탐탁하지 않다 → 탐탁**지** 않다
넉넉하지 않다 → 넉넉**지** 않다
만만하지 않다 → 만만**치** 않다
섭섭하지 않다 → 섭섭**지** 않다
조용하지 않다 → 조용**치** 않다
익숙하지 않다 → 익숙**지** 않다

#수입에 걸맞는 생활 (X)

수입에 **걸맞은** 생활 (O)

#걸맞다 : 두 편을 견주어 볼 때 서로 어울릴 만큼 비슷하다.

※ 걸맞다는 **형용사이기** 때문에 '-는(현재 관형사형)'은 어울리지 않다!

#**곰곰이** 생각하다. (O)

곰곰히 생각하다. (X)

#곰곰이 : 여러모로 깊이 생각하는 모양.

#금세 : 지금 바로. '**금시에**'가 줄어든 말로 구어체에서 많이 사용된다.

Ex) 알팍한 양철 난로는 **금세** 빨갱게 달아오르면서 방 안이 훈훈해졌다. 출처: 최인훈, 구운몽

#금세 : 물건의 값. 또는 물건값의 비싸고 싼 정도.

Ex) **금새**(를) 치다 : 어떤 물건의 시세나 값이 얼마 정도라고 정하다.

#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**넋두리** 같은 혼잣말을 했다. (O)

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넋두리 같은 혼잣말을 했다. (X)

#넋두리 : 불만을 길게 늘어놓으며 하소연하는 말.

#한번은 죽을 것을 무릅쓰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. (X)

한번은 죽을 것을 무릅쓰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. (O) 출처: 장용학, 역성 서설

#무릅쓰다 :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디다.

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그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다. (O)

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그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다. (X)

#바람 :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.

불을 켜서 붙이자, 어디선가 부나비 한 마리가 기다리고 있기라도 했던 듯 봉 날아와서 남포등 유리에 머리를 부딪치고 떨어져서...

출처: 한승원, 해일

#불나방 = 불나방 : 나비목 불나방과의 곤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.

불나비는 잘 못 된 말!

※ ‘부나비’와 ‘불나방’은 모두 널리 쓰이므로 둘 다 표준어로 삼는다.

관련조항 : 표준어 규정 3장 5절 26항

#찌개에는 돼지비계만 몇 점 떠다닐 뿐이었다. (O)

찌개에는 돼지비계만 몇 점 떠다닐 뿐이었다. (X)

#비계 : 짐승, 특히 돼지의 가죽 안쪽에 두껍게 붙은 허연 기름 조각.

#서슴지 말고 대답해라. (O)

서슴치 말고 대답해라. (X)

#서슴다 :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망설이다.

※ ‘조용치’, ‘만만치’와는 다르게 원형 ‘서슴다’에 ‘ㅎ’이 없기 때문에 ‘치’가 아닌 ‘지’로 발음

#싫증 (- 症 증세 증) : 싫은 생각이나 느낌. 또는 그런 반응.

Ex) 그는 매일 반복되는 생활에 싫증을 느끼고 있다.

#실증 (實 열매 실 증 증거 증) : 확실한 증거. 실제로 증명함. 또는 그런 사실.

Ex) 실증된 사실

#네놈의 엉큼한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? (X)

네놈의 엉큼한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? (O)

#엉큼하다 : 엉뚱한 욕심을 품고 분수에 넘치는 짓을 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다.

#웃은 새것이었으나 수염을 못 깎으셔서 콧수염에 구레나룻까지 거말게 자라 있더군요. (O)

웃은 새것이었으나 수염을 못 깎으셔서 콧수염에 구레나루까지 거말게 자라 있더군요. (X) 출처: 이문열, 변경

#구레나룻 : 귀밑에서 턱까지 잇따라 난 수염.

#꽃봉우리가 피다. (X)

꽃봉오리가 피다. (O)

#꽃봉오리 : 망울만 맺히고 아직 피지 아니한 꽃. 희망에 가득 차고 장래가 기대되는 젊은 세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

#달은 벌써 산봉우리 위로 올라앉았다. (O)

달은 벌써 산봉우리 위로 올라앉았다. (X) 출처:이기영,고향

#산봉우리 : 산에서 뾰족하게 높이 솟은 부분.

#맞추다 :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제자리에 맞게 **대어 붙이다**.

Ex) 분해했던 부품들을 다시 **맞추다**.

#맞히다 : '맞다(문제에 대한 답이 **틀리지 아니하다**.)'의 사동사

Ex) 정답을 **맞히다**.

#몇 사람의 모가치만 남기고 나머지 물건들은 처분하였다. (O)

몇 사람의 몹어치만 남기고 나머지 물건들은 처분하였다. (X)

#모가치 : 몹으로 돌아오는 물건.

#전셋집은 삭월세 집으로 떨어지고, 삭월세 집은 다시 삭월셋방으로 내려앉아... (X)

전셋집은 사글세 집으로 떨어지고, 사글세 집은 다시 사글셋방으로 내려앉아... (O) 출처:이태준,산월이

#사글세 : 집이나 방을 다달이 빌려 쓰는 일

#오지랴이 넓다. (X)

오지랴이 넓다. (O)

#오지랴 : 옷웃이나 뒷도리에 입는 겉옷의 앞자락. 이 일 저 일에 관심도 많고 참견도 많다.

#옆구리를 간질이다. (O)

옆구리를 간지르다. (X)

#간질이다 : 살갓을 문지르거나 건드려 간지럽게 하다.

#체력이 딸리다. (X)

체력이 달리다. (O)

#달리다 : 재물이나 기술, 힘 따위가 **모자라다**.

#딸리다 : 어떤 것에 매이거나 **붙어 있다**. 어떤 부서나 종류에 **속하다**.

#일이 꺼림칙하게 되어 가더니만 결국 사달이 났다. (O)

일이 꺼림칙하게 되어 가더니만 결국 사단이 났다. (X)

#사달 : 사고나 탈.